

[최종점검]

(경상북도)

# 현장 화합형 농업인.귀농.귀촌인 애로 해결소

부제: 귀농·귀촌인과 농업인의 행복 나눔터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일시: 15.10.20, 오후 2:00 ~ 4:00

탐험가이드: 장종균

탐험대원: 김정율, 이순석, 정창호, 박덕근, 김  
동영, 김유철, 심재용, 윤정주, 장미정, 김철중

# 1. 추진현황

No.	진행 내용	1차 (7.30)	2차 (8.24)	3차 (8.25)	4차 (8.26)	5차 (8.27)	6차 (9.10)	...
1	kickoff 미팅, 전체 계획수립							
2	활동 프레임워크 수립							
3	데스크 리서치							
4	현장 관찰							
5	관찰 결과 분석							
6	워크샵, 컨셉 정의, 서비스 도출							

## 2. 국민디자인단 활동 전,후 개선사항

### 가. 주요 이슈 별 개선사항

( 귀농 ↔ 귀촌인, 귀농/귀촌 ↔ 현지 농업인간의 소통(기술, 생활방식)의 어려움 )

기존 정책  
서비스

본 이슈 해결 목적의 정책은 없고,  
유입 및 준비 단계의 물질/기술 중심의 지원만 존재함



수요자의견

- 지역문화 적응이 어려움
- 귀농인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
- 이해관계가 맞는 공동사업과 사업장 필요
- 공경 받고 싶음



인사이트

-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는 지역문화의 벽이 존재**
- 정서적인 부분을 중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문제 발생 후 해결보다는 사전에 소통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



정책대안

- **지역 주민이 심리적/물리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
- 기술 교육 외 삶, 터전, 문화에 대한 교육 서비스
- 지역 사회의 귀농 필요/가치와 상생프로그램(가칭) 제공



기대효과

성공적인 지역 정착으로 상생을 통한 소득증대 및 삶의 질적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매개체 역할

## 2. 국민디자인단 활동 전,후 개선사항

### 나. 국민디자인단 활동 전후의 변화

구분	활동 전	활동 후
정책대상	귀농/귀촌인/현지 농업인	귀농/현지 농업인, 귀촌인
문제정의	유입중심 정책으로 유입 이후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사후 관리 부재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문제인식의 관점 변화 유입 중심 → 성공적인 지역 정착 중심
목표설정	초기 준비단계에 필요한 물리적인 지원(교육 및 자금 지원)에 초점	정착 및 협업에 필요한 H/W+S/W적 지원으로 지역 주민간 갈등 사전 방지 및 지역 소득 창출 계기 마련
수요자 이해	귀농/귀촌을 준비/정착하기 위한 농업 교육 및 자금 지원 필요	실질적으로는 지역 문화 적응(사고방식/생활양식) 및 현지 농업인의 인식이 중요한 문제
디자인역할인식	시각 및 제품 관련 스타일 위주의 일반적인 인식	이해관계자간의 Needs를 파악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
사업확대	유입 정책 및 귀농인 지원 사업 확대 (자녀학자금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영농정착금 지원 등)	현지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 구성을 통한 마을 소득 창출 모델 구축
서비스의 질적 요소	자녀학자금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영농정착금 지원 등	소통의 장 마련 다양한 정보 교류로 갈등 요소 예방
서비스의 성과	농촌 유입인구 해마다 증가 추세	성공적인 정착 및 소득증대 등 시너지 효과 창출
기타	지역 주민 갈등요인 및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 파악 필요	지역 주민과 운영 담당자의 협조 필요

\* 공공서비스의 질적 구성요소 측면 : 접근성, 편리성, 신속성, 정확성, 쾌적성, 대응성, 형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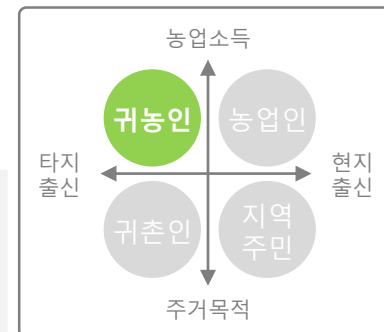
\* 공공서비스의 성과 측면 : 행정수준, 만족도, 효율성



**이름** : 김귀농  
**나이** : 48세  
**분류** : 귀농인  
**취미** : 블로그

## Social Farmer

“제 장점을 잘 활용해서 개인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성공적인 농가를 이루고 싶은데 현지 농민들과 친해지기는 쉽지 않아요”



<b>Need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농작물 판매와 연결</li> <li>지속적인 관리로 보유 고객 늘리기</li> <li>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지역민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 필요</li> <li>빠른 지역 커뮤니티 소속</li> </ul>
--------------	---

김귀농 씨는 도시생활만 해오던 40대 후반의 기혼 남성이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해왔으며, 꾸준한 활동으로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지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나 사고방식도 많이 다르고, 현지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고민이다.

<b>Attitud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민들과 잘 화합해서 성공적인 농가를 이루고 싶어함</li> </ul>
-----------------	--

<b>Behavior</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 생활만 해왔던 김귀농 씨는 현지 생활 2년 차로 마을 주민들과 친해지고 싶지만 아직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음</li> <li>교육 받은 재배 방식과 현장에서 어른들이 말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의문이 생기고 생산 방식 공유가 어려움</li> <li>수시로 농업관련 기사를 탐색하여 농업 관련 첨단 기술 및 트렌드 등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li> <li>오랜 블로그 활동으로 자체 커뮤니티 보유하고 있으며, 카톡/밴드 등 판매와 연관된 소셜 미디어 적극 활용</li> <li>스마트폰으로 재배 과정 사진 캡처 공유 및 실시간 댓글 확인</li> <li>블로그에서 재배한 작물을 좀 더 생생하게 소개하고자 사진 촬영 독학</li> <li>정착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수익을 내고 있음</li> </ul>
-----------------	--

현지친화도 ● ● ● ● ●  
 미디어활용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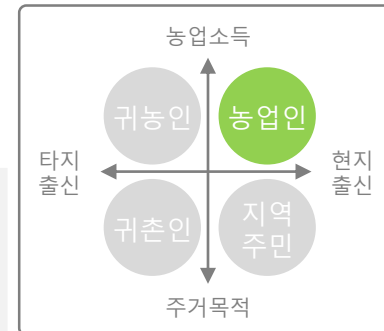
<b>Business Goal</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민들과 잘 화합해서 성공적인 농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반면 지역주민들과의 화합할 기회가 많지 않고, 경험 및 사고 방식의 차이로 쉽게 친해지기 어려워 서로 이해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li> </ul>
----------------------	--



**이름** : 나농업  
**나이** : 72세  
**분류** : 현지 농업인  
**취미** : 담소

## Local Specialist

“여기서 태어나서 이 지역 사정은 너무 잘 알고 마을 주민들과도 친하지만 농사는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와줘야 할 텐데 걱정이예요.”



<p><b>Need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들과 친하고 정부의 농작물 재배 시책을 잘 준수하나 정작 농업 소득은 크지 않아서 앞으로가 걱정</li> <li>▪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으면 함(소득이 생긴다면 좋음)</li> </ul>
<p><b>Attitud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도우며 잘 살기를 바라며, 항상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li> </ul>
<p><b>Behavior</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토박이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 유지</li> <li>▪ 지인으로부터 얻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li> <li>▪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화통화가 대부분</li> <li>▪ 누구 땅이 어느 구역까지인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음</li> <li>▪ 주민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재자 역할</li> <li>▪ 기존 방식이 익숙하고 편함</li> <li>▪ 주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일손을 돕기를 마다하지 않음</li> <li>▪ 농작물 소출이 일정하지 못해 걱정이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다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힘들어 함</li> </ul>
<p><b>Business Goal</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들과 잘 지내기는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소득과 연관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필요</li> </ul>

나농업 씨는 현지 토박이로 70대 초반의 기혼 남성이다.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자라 마을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가끔은 중재자 역할을 한다. 도시생활을 하다가 온 귀농인에게 가끔 농사 팀을 주지만 잘 듣지 않는 것 같다.

현지친화도 ●●●●●  
 미디어활용 ●●●●●

### 3. 결과물 방향(초안)

## #스마트한 귀농인과 현지 토박이 농업인의 협력 시나리오

### 1. 농촌상담소나 마을회관을 지역 커뮤니티 채널로 새롭게 활용할 계획 수립

- 상담소의 경우 상담소장이 안내자 역할 : 지역 농업인을 많이 알고 있는 상담소장이 지역민을 연결시켜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기에 적합
- 정기적 모임 주선으로 정보 교류의 계기 마련
- '행복 나눔터(가칭)'로 개칭 : 마을회관 같은 경우 실제로는 노인정처럼 활용되고 있어 인식 개선 차원으로 개칭하여 현판을 달고 공지

### 2. '행복 나눔터(가칭)'로 개칭 및 상생 프로그램(가칭) 운영

-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귀농인에게 부족한 인적/물적 지역정보: ex)마을 안내책자 비치  
현지 농업인에게 부족한 미디어 활용 정보  
최신 농업 경향이나 경영 마인드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정보  
각종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 공유
- 새로운 귀농/귀촌인 환영 행사
- 작목별 커뮤니티  
재배 과정 공유로 재배 팁 교환 → 재배 방식 개선 → 농업 생산성 증대
- 전체 주민 정기 모임  
주민 화합 행사, 지역내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작목 재배 정보 및 경영 정보 공유 → 기회 발굴 및 경영 개선의 계기

### 3. 운영효과

- 지역민 교류 증대로 인한 갈등 요인 감소
-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현지 농업인에게 상생 프로그램은 기존 농업과 다른 새로운 관점의 기회 제공
- 귀농인에게는 현지 농업인들만이 알고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지역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 교환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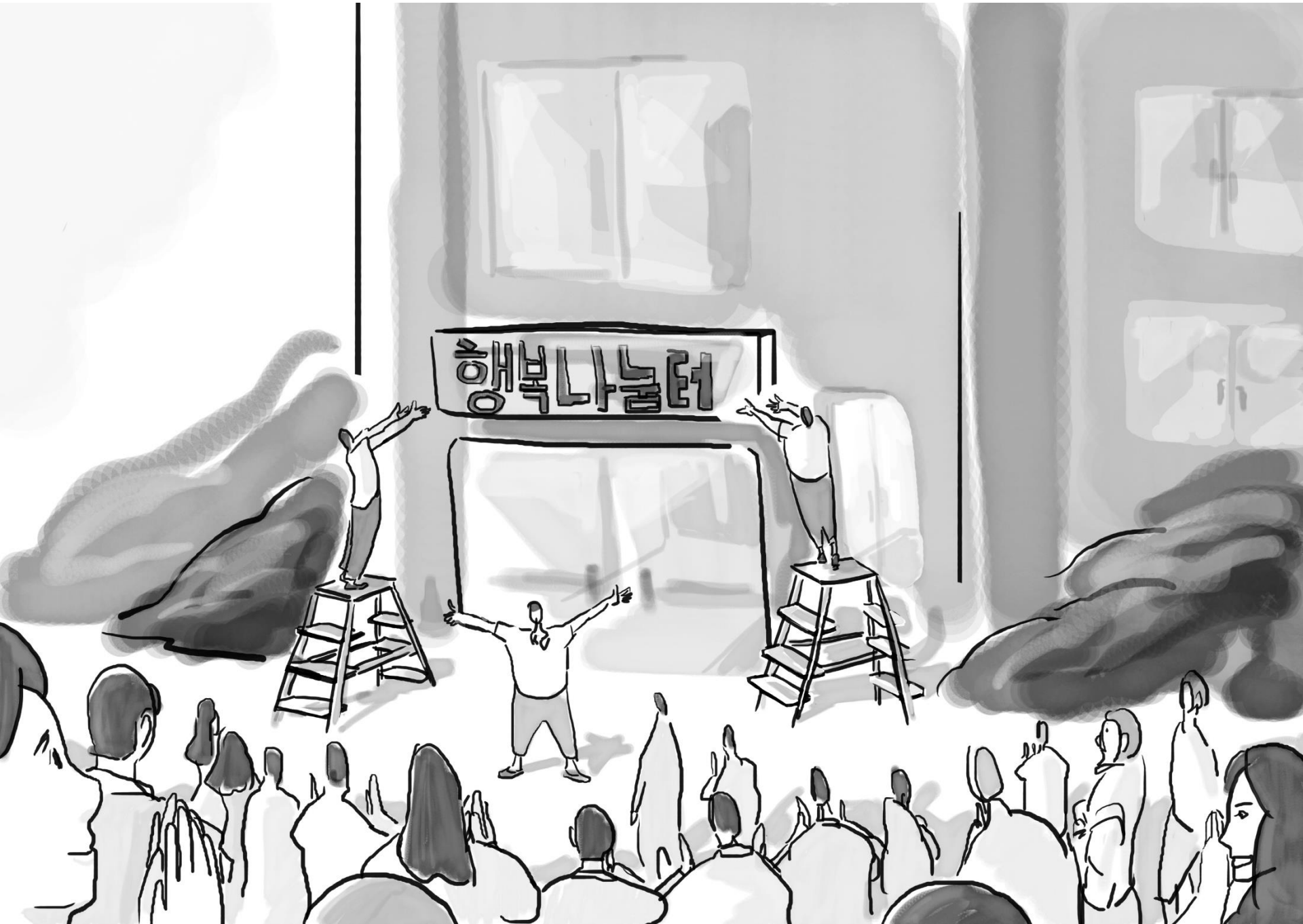
→ 궁극적으로 행복 나눔터와 상생 프로그램이 귀농인 및 농업인의 실질적인 교류를 증대시켜 농업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지역 농업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됨

Scene #1: Social Farmer & Local Specialist





Scene #2: 행복 나눔터 현판식 현장



Scene #3: 행복나눔터



Scene #4: 마을 정보 및 각종 프로파일 파악



Scene #5: 지역민과의 원활한 소통/교류



Scene #6: 성공적 정착과 작물 재배 및 유통

지역정보

지역민과의  
소통

안정적인  
정착

온라인  
판매



**감사합니다.**

